

북

Books

타인 머릿속 들어가보고 싶은 인간 심성 미스터리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말콤 글래드웰 지음

'블링크', '아웃라이어' 등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읽어본
독자라면 "와, 어떻게 이런 주
제를 생각해냈지?", "이 이야
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도 있구나"하며 감탄하지 않
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유의
흡인력과 기발한 발상은 그가 '이 시대의 가장 독보
적인 논픽션 저술가'로 추앙받는 이유다.

이번 책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역시 기대를 저
버리지 않는다. 책은 저자가 1996년부터 기자로 일
하고 있는 '뉴요커'에 기고했던 수많은 칼럼과 기고
문, 기사 중 대표적인 19개의 꼭지를 주제별로 가려
뽑아 엮은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자기계발서와는 약간 그 궤를 달
리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서문에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인간의 충동과 관련해 가장 흥미롭고
색다른 이야기를 가려 뽑아 재구성했다"고 쓰고 있
듯 어찌 보면 시시콜콜한 일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며 인간의 심성에 대한 연구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 제목은 개 심리학자 '시저 밀란'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저자는 "광활한 개도 시저 밀란의 손만
닿으면 온존해질 정도로 개의 심리를 완벽히 읽어내
는 동안, 그 개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책의 단초가 되었다고 밝힌다.

영뚱한 제목처럼 흥미로운 질문과 그 풀이가 가득
하다.

1부는 '마이너 천재'라고 부르는 외골수들의 얘기
를 다뤘다. 마이너 천재인 저자 글래드웰의 글에 꾸
준히 등장해온 '중간 그룹의 인간형'을 뜻하는데, 그



말콤 글래드웰은 철린저호 공중폭발 사건을 사례로 들어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실패 위험을 0으로 줄일 수 있다"는 통념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1986년 미국 우주왕복선 철린저호 공중폭발 모습)

주인공은 채소 절단기 찹-오-매틱(Chop-O-Matic)을 판매한 론 포페일(Ron Popeil)이나 "염색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진실은 미용사만 알 수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카피를 쓴 셀리 폴리코프(Shirley Polkoff) 같은 사람이다.

2부는 사회현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즉 사회현상을 통해 글래드웰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숙자 문제나 회계 부정, 철린저호 폭발 같은 재난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그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해석과 해결책을 내놓는다.

3부는 타인을 판단하는 일에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 인간의 성격과 인격, 그리고 지능을 결정짓는 요소에 빛은 없는지를 파헤친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가 타인을 나쁘다, 똑똑하다, 혹은 유능하다 그리고

그냥 좋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그다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저자는 이 외에도 머스터드는 종류가 10가지가 넘는데 왜 계집은 한 가지뿐인지, 유방 조영술과 항공사진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피인약 개발자도 몰랐던 여성의 몸과 마음의 정체는?, 위축되는 것과 당화하는 것의 심리적 차이는 무엇인지 등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할 독특한 호기심에 대한 생각을 풀어썼다.

이처럼 19개의 꼭지를 찾아 여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래드웰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세계관에 매료될 것이다. 사소한 일들 속에서 인간 심연에 존재하는 소중한 교훈과 감성, 핵심을 날카롭게 통찰하는 저자 말콤 글래드웰의 미력에 다시 한 번 감탄을 금치 못한다.

(김영사·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을 알려준다.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비밀=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카마인 갈로가 '프레젠테이션의 전설'로 불리는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에 숨겨진 비밀을 분석했다. 효과적인 메시지 구성법, 아이디어 전달 방법, 제품이나 기능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는 법, 프레젠테이션을 인상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최적의 방법 등 <랜덤히우스코리아·1만3천원>



다.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일본 조선학교 후원 모금회 공연이나 사형제 폐지 국민운동 공연 등에서 노래하고 성공회대에서 강연도 하는 가수 겸 작곡가 이지상씨의 노래와 세상 이야기, 이씨는 노래 부르며 다닌 그늘진 곳과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세상에 항의하고 노래의 힘을 되돌아본 <삼인·1만2천원>



세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돌베개·1만4천원>



▲디오니소스의 철학=이탈리아 철학자 마시모 도나가 말하는 '술속에 빠져 바라본 철학의 세계'. 술의 의미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일상과 사상, 악습과 미덕, 이성과 감정, 절제와 방종 사이를 오가는 술의 의미를 짜여본다. <시그마북스·1만6천원>



▲일본 재발견=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본연구기획팀, 해외연구실장을 지낸 이우광씨가 쓴 일본 분석서. 저자는 일본사회의 실제 분석을 위해 모든 면에서 의욕을 상실한 젊은이, 문화로 승부수를 둔 일본 '소프트파워'의 저력, 다양한 분야에서 떠오르는 기업인, 변화의 바람에 놓인 관료 사회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일본을 짚어본다. <삼성경제연구소·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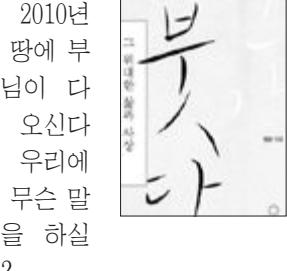


바로잡고자 애쓴 33년을 담았다.

<산지니·1만5천원>

정토희 법륜 스님

'인간붓다' 재출간



2010년
이 땅에 부
쳐님이 다
시 오신다
면 우리에
게 무슨 말
씀을 하실
까?

정토희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1990년 출간한 '인간붓다'가 위대한 삶과 사상'이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손질돼 다시 나왔다.

그동안 '즉문즉설'을 통해 대
안적인 삶을 이야기해온 법륜
스님은 2천600여 년 전 부처의
삶을 재조명하며 오늘 우리 사
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와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신화와
역사의 세계를 넘어 현대 사
회의 수많은 모순과 문제에 새로
운 대안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붓다를 만날 수 있다.

<정토희·1만4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국의 렌즈...

이경민 지음

흔히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렇지 않다.

'경성, 사진에 박하다'를 냈
던 사진평론가 이경민씨는
'제국의 렌즈-식민지 사진과
만들어진 우리 근대의 초상'

을 통해 이번엔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만들어진' 사진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식민지 시절 사진에 비친 조
선 황실의 모습이 초라하게 비치는 점이나, 미개하고
야만적으로 보이는 백성의 사진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

서양인들이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지어

식민지 시절 조선의 사진은 '만들어진' 것이다

고 설명한다.

실제로 식민지 조선의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인 사진사를 고종의 어용사진사로 붙여 조선이 스스로 황실의 이미지를 내보이는 행동을 막았다고 저자는 해석한다.

일본인 어용사진사는 고종을 비롯한 황실 인물을 머리를 깨고 어울리지 않는 서양 제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렸다. 일본인과 함께 찍을 때는 더 작고 덜 화려한 모습을 하도록 신경 썼다는 것.

그 결과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은 사진 속에서 어설픈 '식민지 군주'로, 순종 황제는 '이왕'으로, 그리고 황태자 영친왕은 '황국의 군인' 정도로 보이게 됐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식민지 시절 사진에 비친 조

주었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름은 찬사라기보다는 전근대의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나라라는 오리엔탈리즘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미지는 확정한 것이 바로 서구인들이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외교관 이폴리트 프랑탱과 독일 조사관 헤르만 장녀의 사진을 보면 이런 원시성과 불결함, 또는 서러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저자는 풀이한다.

저자는 또한 책 말미의 '보론'을 통해 역사기록물로서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화된 사진 자료 구축과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영사·1만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FAX 02-1772 1011-802-2532

(광주광역시 신도림동, 대인동 소재사내라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

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들은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

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033-5211 1011-8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경 1층)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1,190평)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신동 22,000㎡ 전답 10만원

나주산포 (15,300평) 조경 35만원

동립동 4,469㎡ (1,352) 준주기 350만원

건물매매

위치 일대 보증금 월세 미매금액

한남지구 37억원 3,300만원 85억원

동립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5억원 6,500만원 100억원

한남지구 4억원 1,700만원 28억원

및 출주문 반송합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으니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현대 공인중개사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경 1층

www.85858949.co.kr